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8503
----------	------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39호	정을호의원	2024. 6.19.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7.24.)
	제4385호	김용태의원	2024. 9.2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024.11.19.)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6.)는 이상 2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2.18.)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또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으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

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120퍼센트”를 “11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100의 9”를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 된 대출원리금의 <u>100의 9</u>를 초 과하지 못한다.</p>	<p>----- ----- <u>100분의 5</u> --- -----.</p>
--	--